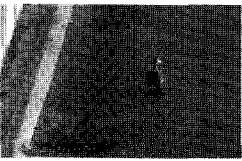


출처 : 아시아투데이 공민영 기자 cafe@asiatoday.co.kr

일본

“아기오리도 소중한니까”
日고속도로서 구조

▲고속도로 가장자리를 뒤동 뒤동 걷고 있는 흰뺨검둥 오리

고속도로에 잘못 들어와 로드킬(roadkill)을 당할 뻔한 아기 오리를 운전자와 지역 경찰이 합심해 구조했다고 29일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교토시내의 메이신고속도로를 지나던 한 운전자는 부모와 자식으로 보이는 흰뺨검둥오리 2마리를 발견하고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는 일대의 교통을 시속 50km로 제한한 뒤 잔뜩 겁을 먹고 떨고 있던 아기 오리를 구출했다. 경찰이 오는 사이 부모 오리는 날아가 버리고 없었으며 아기 오리는 폭약 11m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아장아장 횡단해 중앙분리대까지 진출해 있었다. 이 아기 오리는 현재 교토 경찰서가 보호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오리 부자가) 이동 중에 길을 잃고 헤맨 것 같다”며 “(아기 오리는) 건강하게 먹이를 잘 먹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Sydney Morning Herald

호주

화살에 맞은 오리 치료 후 회복중

Perth의 남쪽 소재의 동물병원에서 화살에 맞은 야생 오리를 치료중에 있으며, 환경당국은 근처 주민들에게 범인 추적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태평양 오리는 Mandurah 근처 Coodanup 지역에서 호주 야생동물 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어 Mandurah 소재의 동물병원에서 화살을 제거하는 수술 후 보호하에 있다.

“오리와 같이 무해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사격 연습은 불법 일뿐만 아니라, 완전히 비인간적인 것으로, 누군

가가 이러한 무방비 상태의 생명체에 이런 짓을 한다는 사실이 슬프다”

다친 오리는 극적으로 구조되어 생존하였으며, 화살이 뼈나 주요 장기에 큰 손상을 입히지는 않았다고 Craigie 씨는 전했다. 태평양 오리는 Wa 야생동물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고 위반시 4,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조된 오리는 야생으로 돌려보내지기 전에 재활치료 등을 위해 치료소에 보내질 예정이다.